

정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기업 "동참"

현장 중심으로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주류도매업중앙회 "소주 도매가 동결"

정부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각 부처별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높은 물가로 국민들이 힘겨워하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자회의를 열고 김장재로 수급안정 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물가관계자회의이다. 앞으로 모든 부처 차관은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 수급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

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부 물가 담당 부처 중심으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각 부처는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물가안정대응반을 가동해 산자·유통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

했다. 산업부 중심의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매주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 단계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자회의에서 공유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각종 원재료 상승에도 일부 식음료 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에 당분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주류도매업단체는 이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주 도매가를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중류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전날 결의대회에서 기업의 인상 요인을 흡수해 주류 도매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고, 국가의 물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이틴주류가 이날 소주와 테라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약 7% 인상하고, 오비맥주도 지난

달 가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가가를 올렸지만 물가안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생크림과 연유 등의 제품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우유는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당초 생크림, 휘핑크림, 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을 고심해 왔으나, 소비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우유는 "이번 사안은 주요 먹거리 가격 인상 대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원가 상승분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사흘만에 정상 가동

협력사 부품 공급 재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여파로 생산 라인 가동이 멈췄던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사흘 만에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9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로부터 부품 공급이 재개, 이날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 광주 각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열린 사고 발생 협력업체의 작업중지해제심의에서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7일 샷시 차체부품을 공급하는 기아 1차 협력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작

업 중이던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고 당일 밤 9시부터 순차적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 서 하루 2000대 상당의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1차 협력업체 50여 개사를 비롯해 총 150여 개의 협력사가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업체가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현장은 언제든 지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원하청의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차량운반기계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호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현장은 이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 지부의 조사결과다. 사고당시 지게차는 단독작업을 진행했고, 출입통제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또 사고현장의 출입구에는 보행자의 별도 출입구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중량물 취급작업은 원청의 작업허가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계획서 수립 및 작업 지휘자의 입회 하에 작업을 해야한다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전, 국내 최대 에너지박람회 빅스포 적극 지원해야"

광주시 "예산난 이유로 올해 취소 이어 내년도 불투명"

광주시가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에너지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빅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한전의 지방(나주) 이전 목적에는 낙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서 "광주·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빅스포 개최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도록 한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더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주시는 "특히 해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서 열려온 빅스포는 지난해 1만7000여명 참가하고 참가 기업 233개, 참여국 60개, 수출액 약 4500만 달러 실적을 보인 광주·전남 대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한전에서 적자를 이유로 지원하지 않아 올해 빅스포가 열리지 않았고, 내년에도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한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9일 동신대학교에서 진행된 '가래떡DAY' 행사에 참여한 고성신(오른쪽 세번째) 농협 광주본부장과 농협, 동신대 관계자가 가래떡을 들어보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농업인의 날 앞두고 '가래떡DAY'

매년 쌀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9일 동신대학교에서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맞아 '가래떡DAY'를 개최했다. 가래떡DAY는 농업인의 날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돼 운영되는 날로 농협광주본부는 매년 지역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래떡DAY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에는 고성신 본부장과 이주희 동신대 총장, 광주시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 의장인 광주비어농협 박흥식 조합장과 농협광주본부 임

직원이 참여했다. 농협과 동신대는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가래떡과 쌀음료를 나눠주는 등 농업·농촌을 위한 의미있는 쌀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고성신 본부장은 "농업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생명장교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농협광주본부는 11월 11일이 몸에 좋은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으로 사랑을 전하는 날로 기억되고, 우리농산물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효성, 바다 속 탄소저감 위해 '잘피' 심는다

해양생태계 보호 캠페인 실시

효성은 지난 8일 바다 생태계 보전 및 탄소중립 등 ESG경영 활동의 하나로, 경남 거제시 다포리에 위치한 다포항 해변에서 잘피 채취, 이식 및 해안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주사인 ㈜효성 및 주요 계열사 4개사인 효성티앤씨(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의 임직원과 한국수산자원공단, 거제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잘피 1만주를 심고 해양생태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잘피는 바닷속에서 자라는 해양 식물이자 해양 생태계에 의해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이다.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알려진 잘피는 헤क्टर 당 연간 4.07t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피보전 및 관리에 효성이 민간기업 최초로 참여했다. 효성은 지난해 말 잘피 분포 현황 및 서식 환경 모니터링, 잘피 보식 필요 장소에 이식 등 잘피숲 관리사업을 위해 농어촌생협협력기금을 출연한 바 있다.



(주)효성, 효성티앤씨(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 임직원이 경남 거제시 다포항 일대에서 잘피 이식 준비를 하고 있다. (효성 제공)

행사에 참여한 효성 한 임직원은 "회사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다"며 "효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ESG 경영

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혁신성장벤처포럼 열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지난 8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2023 광주전남혁신성장벤처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와 전남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상생 협력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윤정호 ㈜유노파트너스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비즈니스 미래 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두 협회 측은 "최근 지방 벤처기업들이 줄어들고 지역 경기 상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최근 악재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지혜롭게 이겨 나가야 할 때"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확대 하고 양 협회의 인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 벤처기업의 발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산단공-광주연구원 '산업입지 포럼' 개최

'지역혁신과 산업단지의 동행' 주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9일 광주연구원(원장 최치국)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중연회장에서 '지역혁신과 산업단지의 동행'을 주제로 '2023년 제3차 산업입지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정부가 '지방시대 개막과 산업단지 재도약 전략' 등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단지 혁신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지역산업 진흥과 산업단지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전략 모색 및 지역 연구기관과 중앙 공공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경제 전문가, 산업입지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개의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우한성 산업단지공단 책임연구원이 '호남권 전략산업의 창업활동 현황과 지원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한경록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광주전남의 산업단지 제조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연구원은 광주시 시정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7월 출범했다. 권기용 산단공 산단진흥본부장은 "국내의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산업단지와 지역경제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지역산업의 진흥과 산업단지의 혁신이 강력한 상승관계가 있음을 주지하면서, 오늘 포럼이 지역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산업단지의 비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7.08(+5.46)
▼ 코스닥	802.87(-8.15)
▲ 금리(국고채 3년)	3.847(-0.021)
▲ 환율(USD)	1310.10(-0.50)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